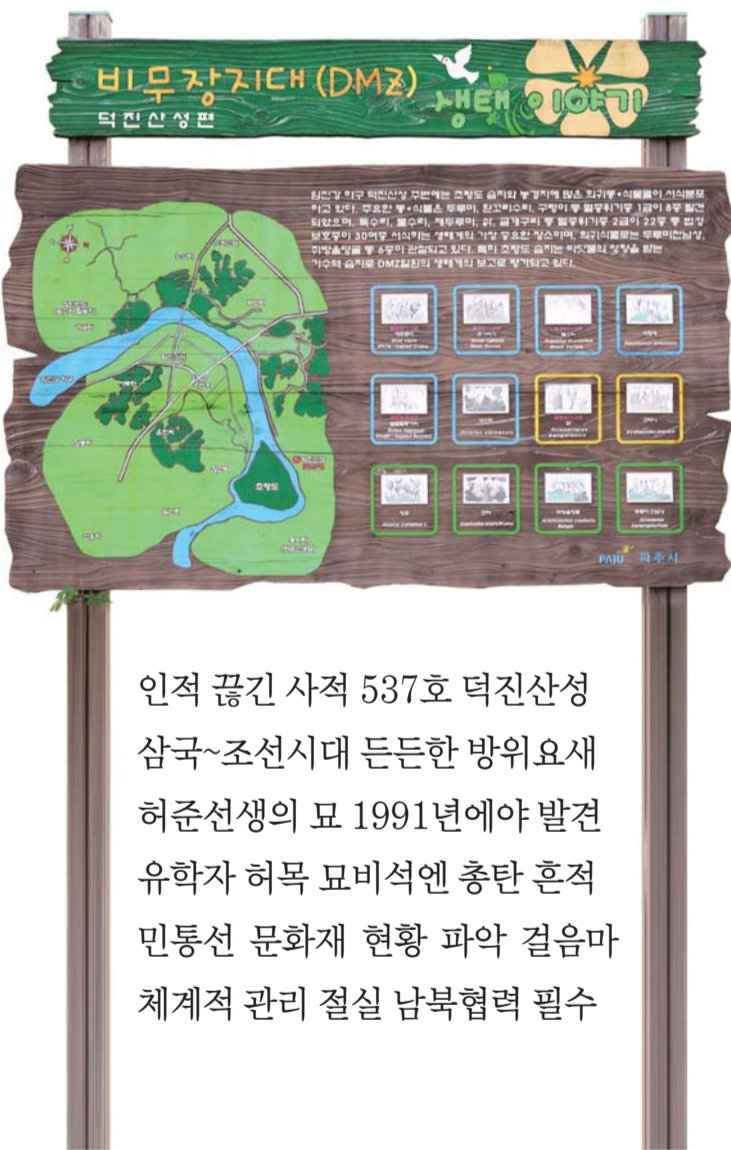




남북 관계 깨어 나는데 잠들어 있는 천년 역사

삼국시대에 축조된 것으로 추정되는 사적 제537호 덕진산성. 성곽 주변으로 임진강이 흐르고 있다.

한반도 평화시대 희망과 생명의 땅 DMZ를 가다 (3) 민통선내 위치한 문화재



인적 끊긴 사적 537호 덕진산성
삼국~조선시대 든든한 방위요새
허준선생의 묘 1991년에야 발견
유학자 허목 묘비석엔 총탄 흔적
민통선 문화재 현황 파악 걸음마
체계적 관리 절실 남북협력 필수

지난 22일 연천군 지역 민간인통제구역(민통선)에 있는 유학자 미수 허목의 묘역은 한산했다. 4·27 남북정상회담 이후 DMZ(Demilitarized zone)와 민간인통제구역내에 거주하는 주민들을 괴롭혔던 남북확성기가 철거 되는 등 이곳을 감싸던 긴장감이 해소되고 있는 사회 분위기와 상반된 모습이다.

특히 남북 화해 분위기 속에 임진각을 비롯한 안보관광지들에 사람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는 모습과도 너무 달랐다. 이런 외형적인 분위기 외에도 가까이 들여다 본 민통선 내 문화재는 그 가치에 비해 사람들의 관심 속에 잊혀져 있었다.

역사학자들은 고대사의 각축장 중 한 곳으로 임진강 일원을 꼽는다. 고구려와 백제, 신라는 임진강변 주요 지점에 산성을 쌓고 호시탐탐 상대 국가를 공격할 틈을 노렸다. 그 대표적인 성이 호로고루, 당포성, 은대리성, 무들리부루 등이다. 민통선 안에도 삼국시대 축조된 것으로 추정되는 성이 있다. 바로 사적 제537호 덕진산성이다.

최근 발굴조사 결과 덕진산성은 삼국시대에 축조 됐지만 조선시대까지 전략적 우수성을 인정 받아 외성을 확장해 사용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덕진산성에 오르면 왜 삼국시대부터 조선시대까지 1천년이 넘는 시간 동안 이 땅을 지배하던 국가들이 아꼈는지 알 수 있다. 사람의 발길이 끊어진 지금 덕진산성 주변에는 초평도 습지와 농경지에 희귀한 동식물만이 살고 있다. 덕진산성 성곽을 걷다보면 초평도와 그 주변을 둘러 흐르는 임진강의 수려한 경관에 마음을 뺏긴다.

차를 타고 통일대교를 거쳐, 민통선 내 10여km를 달리면, 조선 시대 대표적인 명의로 꼽히는 허준 선생의 묘가 나온다. 경기도기념물 제128호인 허준묘(許浚墓)는 지난 1991년 9월 30일 재미 고문헌 연구가들에 의해 발견됐다. 허준 선생이 각고 끝에 완성한 '동의보감'은 지난 2009년 유네스코 세계기록문화유산으로 등재돼 관심을 받는 반면, 정작 이 책을 집필한 허준 선생의 묘역은 사람들의 발길이 끊겨 쓸쓸함이 물어났다.

연천지역 민통선 내 대표적인 문화재는 조선시대 유학자 미수 허목의 묘역을 꼽는다. 유학자 송시열과의 '예송논쟁'으로 유명한 허목은 조선 중기 대표적인 대학자이자 서예가다. 그를 기리기 위한 묘역인 '미수허목묘역(경기도기념물 제184호)' 또한 민통선 안에 위치해 있다. 묘역에 도달하기 위해선 반드시 군 초소를 거쳐, 군인을 대동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다. 해발 100m의 언덕에 위치한 묘역은 그의 님을 기리

기 위한 큰 규모만큼이나 전쟁의 상흔이 고스란히 담겼다는데 특징이다.

묘비석 등에는 6·25 전쟁 중 이뤄진 총격전의 흔적이 총탄 자국으로 고스란히 남아있다. 이날 묘역관리를 위해 이곳을 찾은 허기욱(70)씨는 더 많은 사람들이 묘역을 찾길 희망했다. 허씨는 "종손들의 노력으로 묘역 관리가 잘 되고 있다. 평화 분위기로 민통선 출입이 좀 더 자유로워진다면 보다 많은 관광객들이 찾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덕진산성은 최근까지 발굴조사가 진행돼 왔다.

경기지역 DMZ 내에 어떤 문화재가 존재하는지 현재까지 조사된 바가 없다. 철원지역 DMZ 내에 위치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 궁에 도성터의 경우 '나의 문화유산 답사기'로 유명한 유홍준 교수가 문화재청장으로 재직할 당시 그 흔적을 확인했다. 하지만 그 외 지역의 경우 어떤 문화재가 있었는지, 그리고 또 남아 있는지 알 수 없다. 제한적이지만 사람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은 민통선 내의 문화재들은 2000년대 들어 부분적으로 조사 및 발굴 작업이 진행되고 있지만 체계적인 관리는 이뤄지지 않고 있다. 특히 민통선 내에 위치한 문화재는 행정력보다 군의 영향력이 더 큰 특수성으로 인해 조사작업이 진행되지 못하고 있다.

그나마 해당 지역 기초지방자치단체들이 현재까지 발견된 문화재들에 대한 현황을 확보하게 전보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후보시절 공약으로 'DMZ 생태평화공원' 조성을 약속했다.

문화재라는 자산 또한 생태평화공원 조성의 한 축을 담당해야 하지만, 정작 도는 이곳에 위치한 문화재 현황 파악조차 하지 못한 '걸음마' 단계에 머물고 있다.

도 관계자는 "신임 도지사 부임 이후 서둘러 문화재 등 역사적 보존가치가 있는 유물들에 대한 현황파악을 하고 있다"면서도 "남북협력이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관계개선 없이 단독으로 문화재 발굴 등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고 말했다.

출입이 어렵지만 현재 지정된 문화재를 중심으로 추가 발굴작업이 적극적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경기문화재연구원 관계자는 "미수 허목묘역의 경우 추가 발굴이 필요한 상황이다. 적극적인 발굴작업이 이뤄졌으면 좋겠지만, 민통선이라는 특성상 출입 등의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설명했다.

/경인일보 취재단



연천군 지역 민통선에 있는 유학자 미수 허목의 묘.



덕진산성은 최근까지 발굴조사가 진행되어 왔다.

한정식 A코스 50,000 | B코스 40,000 | C코스 30,000

일품오리 굴비정식 | 삼합정식 | 떡갈비정식 | 황태찜정식 | 새우튀김정식 22,000

대를 이은 가족모임 다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족 모임이 시작되는 각별한 인연

www.geumsoojang.com

금수장호텔 아리랑하우스

예약문의 (062) 525-2111 계림동 흥플러스 건너편